

유희동 기상청장, 논산 딸기 농가 및 딸기연구소 방문

- 기상기후자료 및 위험기상정보 적극 제공 의지 밝혀

유희동 기상청장은 4월 17일(수), 국민 과일로 부상한 딸기의 주산지인 충남 논산의 딸기 생산 농가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를 방문했다.

최근 서민 과일인 사과와 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산 과일 중 딸기의 매출이 많아졌다(대형마트 3사 기준). 딸기는 재배법 개선과 품종 개량 등으로 현재는 11~12월부터 4~5월까지 출하되고 있다.

올겨울('23년 12월~'24년 3월) 날씨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일사량과 일조시간도 평년보다 적었다. 특히, 2월의 강수일수는 13일로 평년보다 8일이 많았다.

유 청장은 논산 딸기 농가와 딸기연구소를 방문하고 “기후변화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농산물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는 연구소에 기상기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붙임 논산 딸기 농가 및 딸기연구소 방문 사진

담당 부서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정탁 (042-363-3500)
		담당자	주무관	백은희 (042-363-3501)



| 논산 딸기 농가 현장 방문(가운데 유희동 기상청장) |



| 논산 딸기연구소 현장 방문(가운데 유희동 기상청장)